



즉시 배포용: 4/16/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NY 수제 맥주 1년만에 59% 성장 발표

새 연구에서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이 폭발적 성장을 주도함을 발견

뉴욕주 경제 영향은 35억 달러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수제 맥주 산업이 2013년에서부터 2014년 사이에 59% 성장하였고 총 경제 영향은 35억 달러로 추산됨을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양조협회와 뉴욕주와인포도재단을 위해 작성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결과는 이 산업이 시현한 믿을 수 없는 성장의 또 하나의 예입니다. 이 보고서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가 어디든 최고의 수제 주류들 중 일부를 생산한다고 거듭 말해왔는데 이 보고서는 왜 우리가 이 양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뒷받침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Taste NY을 통해 비즈니스를 하는 비용을 줄이고 레드테이프를 되감고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우리는 전주에서 기념비적 성공을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수제 주류 생산자들이 잘 할 때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에 더 많은 돈이 돌며 미래의 성장을 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Stonebridge Research Group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2012년 뉴욕주농장양조법 통과 이래 그리고 지속적인 주지사 지원으로 수제 맥주 산업이 크게 성장했음을 밝힙니다. 수제 양조장 수가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즉, 2012년에는 양조장이 95개 있었는데 2015년 1월에는 207개가 있습니다. 수제 맥주 생산은 2013년 859,535 배럴로 2011년보다 54% 증가하였습니다.

수제 맥주 산업은 주의 경제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제 맥주는 6,552개의 직접 산업 일자리를 차지하고 관련 산업에 다른 4,814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합니다. 수제 맥주 산업은 주내에 직접 및 간접 수입 29억 달러 이상과 직접 및 간접 임금으로 다시 5억 5400만 달러를 담당하여 주 경제에 미치는 총 영향은 약 35억 달러가 됩니다.

관광객과 뉴욕커들이 똑같이 수제 주류 와 수제 맥주 퍼브로 떼지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3,000여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여 년 임금으로 77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4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이 보고서는 말합니다.

Cuomo 지사는 여러 번의 맥주 와인 증류주 과실주 산업 서밋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한 서밋으로 이 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 규제적 레드테이프를 제거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려는 커다란 노력이 있었습니다. 노력의 예:

- 최근 채택된 2015-16 주 예산에 뉴욕주 양조장이 실시하는 시음 행사를 위해 면세를 확대하여, 수 백명의 수제 맥주 생산자들을 위한 비용을 낮추어 그들이 제품을 더 잘 마케팅하고 비즈니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Cuomo 지사의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세금 감면은 2015년 6월 1일에 발효됩니다.
- 2014년 11월에 주지사는 크래프트 뉴욕법에 서명하여 농장 양조장 및 소규모 양조장을 위해 비용을 줄이고, 년 생산 한도를 60,000 배럴에서 75,000 배럴로 늘려 소규모 양조장의 발전을 더욱 자극하였습니다. 역시 2014년 11월에 주지사는 수제 주류 보조금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습니다 — 200만 달러의 수제 주류 마케팅 관측 보조금 프로그램 및 100만 달러의 수제 주류 산업 관광 진흥 보조금 프로그램.
- 2014년 제2회 와인 맥주 증류주 과실주 서밋의 결과로 주류 제조업자를 위해 서류가 제거되고, 농장 와이너리에 대한 비용 및 규제가 줄었습니다.
- 2013년 주류 생산자들에게 주 규제, 면허, 인센티브 및 기타 이슈에 대한 단일 접촉점을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샵의 창설.
- 2013년 농장 사이더리 법은 주류 산업의 발효 사과술 부문의 급속 발전을 도와서 사이더리 수가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480% 성장하였습니다.
- 2012년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의거 처음으로 농장 증류주 양조장이 자신의 제품을 뉴욕주 대박람회, 인정된 카운티 품평회 및 비영리 농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 2012년 제1회 와인 맥주 증류주 서밋의 결과로 제조업체는 시음 행사를 할 때 병을 판매할 수 있었고, 중복 면허를 제거하여 면허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 신규 제조 면허 심사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뉴욕주 주류청의 성공적 노력. 심사 시간을 2010년의 83일에서 2014년 38일로 절반으로 단축하였습니다.
- 주지사의 Taste NY 프로그램의 홍보 노력으로 뉴욕주 주류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시음을 전주 주요 행사로 가져왔고 그러한 제품을 고속도로 휴게소 및 뉴욕시 지역 공항의 특별 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호프 및 맥주맥, 수제맥주 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작물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350,000 달러 기금. 수 십년 전에 질병과 금지로 뉴욕주 호프 농장이 멸실되었지만, 최근 주지사가 서명한 농장 양조업 법은 뉴욕주 수제 양조장이 재료의 20%를 주내에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퍼센티지가 점진적으로 60%, 이어서 90%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정부의 지원으로 호프 경작 면적이 2010년 15 에이커에서 2014년 250 에이커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부 장관Richard A.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뉴욕커들이 요즈음 거의 어떤 커뮤니티에서나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 주의 주류 산업이 중요하고 성장중이며 뉴욕주 경제의 중요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의 주류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뉴욕주양조협회 회장 겸 공동창설자 **David Katlesk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03년에 양조협회가 창립되었을 때는 주에 양조업체가 38개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200개가 넘습니다. Albany에서 수 년간의 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장을 위한 토대를 놓은 수제 입법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뉴욕주는 양조 발전소로서 전국 레이다에 분명히 잡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수제 맥주 친화적인 뉴욕주의 결과입니다.”

뉴욕주양조협회 전무이사 **Paul Leon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제 맥주의 전반적 경제 영향력이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13억 달러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Cuomo** 지사와 그의 행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을 증거합니다. 뉴욕주의 수제 맥주 수용적 환경은 돈을 양조장과 그 직원들에게 되돌릴 경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장을 보는데 이 산업에서 이보다 더 신나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